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관련 증권주 영향 점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주요내용

1. 금융투자소득 도입(22년 시행): 1)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22년),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23년) 포함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2)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파생결합증권 소득, 파생상품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공제(23년 시행),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손실 발생시 3년간 이월공제, 세율의 경우 3억원 이하 20% 및 3억원 초과 부문은 25% 적용
2.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합리화(22년 시행): 1) 비과세인 상장주식 양도손익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시 포함 2) 집합투자기구 손실 발생시 비과세(도표 2참조) 3)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간 이익 및 손실 상계하여 과세
3. 증권거래세 조정(22년~23년): 1) 금융투자소득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되 세수중립적으로 추진 2) 기존 증권거래세 0.25%를 0.15%로 인하(22년 0.02%p, 23년 0.08%p)

투자자별 입장 차이로 인해 증권주 영향을 예단하기 쉽지 않음

3월 국내의 금융시장 급락 이후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 확대로 일평균거래대금 큰 폭 증가(일평균거래대금 2020년 이전 9조원 내외 → 1Q20 15조원 → 2Q20(6/25일 기준) 21조원). 이에 따라 주요 증권사(미래에셋대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합산기준) 2Q20 수탁수수료 +127.6%yoy 증가하여 지배주주순이익 +40.6%yoy인 1.1조원의 최대실적 예상

금번 정부정책 발표에 따른 증권주 영향을 예단하기 쉽지 않음. 이는 투자자별 입장 차이(양도세 부과에 따라 기존 참여자 이탈 및 주식 투자규모 축소 vs 증권거래세 인화에 따른 신규 투자자 유입 및 매매회전을 상승)로 인해 전체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더불어 시행까지 2.6년의 기간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증권주에는 중립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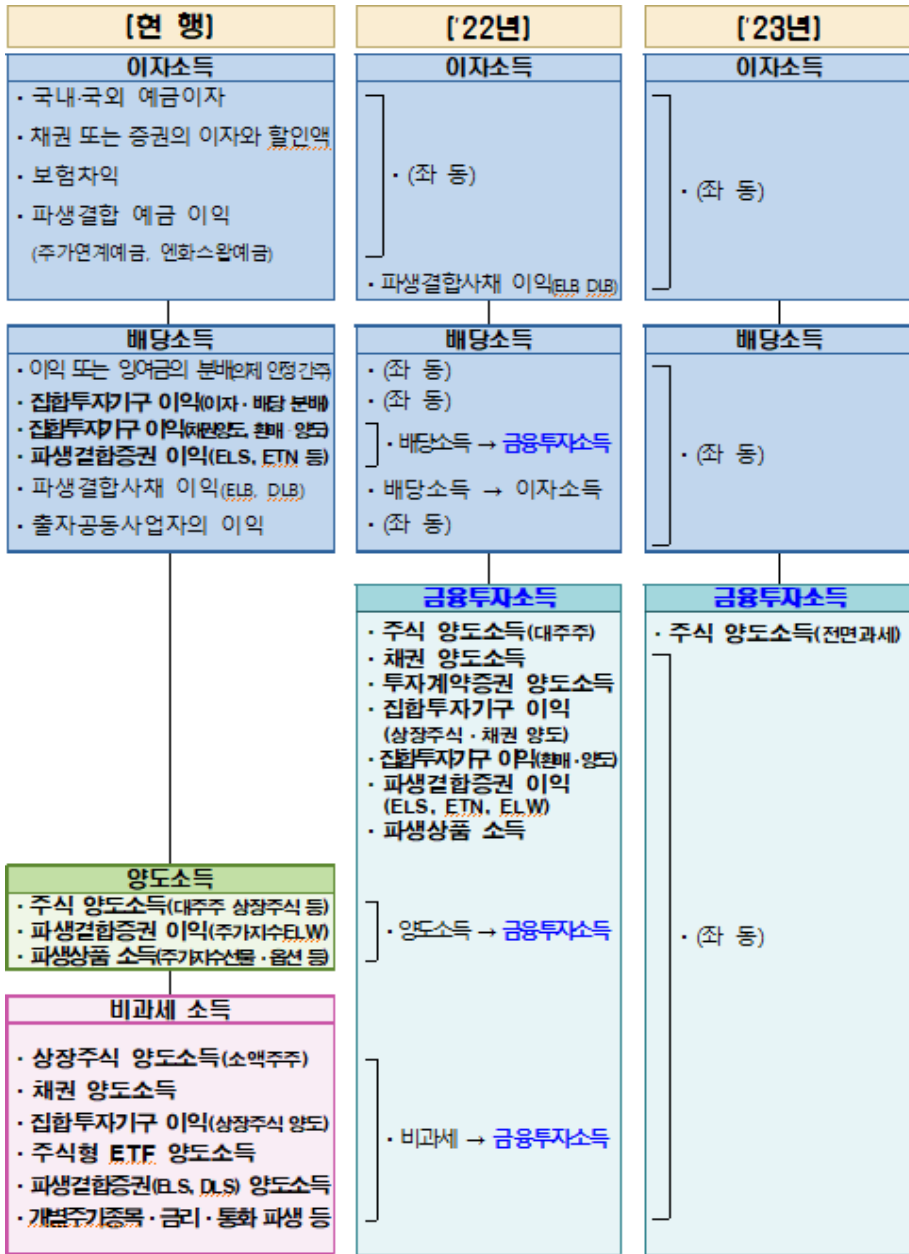
정부정책에 대한 주식투자자 1차 평가는 부정적(6/25일 종가기준 증권주 -3.9% 하락하여 베타 1.3 감안하면 KOSPI -2.3% 대비 -1.0% 추가 하락)

저금리기조하에 주식투자는 자산증식의 대안 중 하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정부의 조세형평성은 이해하나, 비과세라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사라지는 측면에서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는 맞지만 '금융투자 활성화'는 아니라고 판단

김인

은행/증권/보험
kifire@bnkfn.co.kr
(02)3215-1541

Fig. 1: 금융소득의 구분



자료: 기획재정부, BNK투자증권

Fig. 2: 집합투자기구간 손익통산 개선

구분	현행		개선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집합투자기구 A	집합투자기구 B
환매이익	△80	100	△80	100
계	△80(손실 소멸)	100(배당소득 과세)	20(금융투자소득 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BNK투자증권

투자등급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 매수(Buy) +15% 이상, 보유(Hold) -15~+15%, 매도(Sell) -15%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2020.03.31기준) / 매수(Buy) 84%, 보유(Hold) 16%, 매도(Sell) 0.0%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주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BNK 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 1577-2601 www.bnkfn.co.kr

<본사/영업부>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1(부전동) 부산은행 부전동별관 3층, 4층 / [본사] T 051-669-8000 / F 051-669-8009
[영업부] T 051-669-8080 / F 051-669-8099

<서울영업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여의도동) 24, BNK금융타워 6층 / T 02-3215-1500 / F 02-786-2998

<경남영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 BNK경남은행본점 1층 / T 055-290-7100 / F 055-290-7199

<울산영업부>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2 BNK경남은행 울산영업부 1층 / T 052-271-6117 / F 052-271-6111

BNK 금융그룹

BNK부산은행 / BNK경남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BNK자산운용 / BNK신용정보 / BNK시스템